

'사회연대가 살아있는 사람중심 전주'

시, 사회연대·공동체·도시재생 분야 8대 추진전략 제시 혁신 생태계 조성·지역화폐 확대로 선순환경제 실현 등 집중

전주시가 올해 전주시상상품권을 지난해의 4배로 확대 발행해 선순환경제를 실현하는 한편 인구·반촌지역과 팔복동 등 도시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로 했다.

시는 21일 사회연대지원단 신년브리핑을 통해 '사회연대가 살아있는 사람중심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사회연대·공동체·도시재생 분야 8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8대 추진전략은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지역화폐 확대로 지역선순환경제 실현 ▲주민주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공동체성 강화 및 공동체 저변 확대 ▲마을공동체 지속 및 지역 활성화 도모 ▲활력이 넘치는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람·생태·문화 중심의 전주형 도시재생 등이다.

먼저 시는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재정적 지원으로, 사회적신 리빙랩, 사회적한 마당 등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



전주시가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시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로 했다.

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동네마트 입점을 계속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시상상품권(일명 돼지카드)을 지난해보다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혜택을 늘리는 등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용자와 가맹점이 기부할 수 있는 모델도 도입해 공동체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체 저변을 확대해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에도 공을 들인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80여 개의 운두래공동체를 육성하기로 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 활동공유회 등을 통해 공동체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운두래 완산 아울터와 덕진 아울터 등 공유공간을 전시·회의·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기로

했다. 여기에 주민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의제를 도출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는 마을계획추진단 활동도 실시한다.

또한 시는 사람·생태·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선정된 인구·반촌 지역과 팔복동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착수하고 ▲구도심(중앙동·풍남동·노송동)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학동에 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머리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다가동과 서노송동에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남노송동과 진복동 도토리골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새마을 사업도 펼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열린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진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성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전주시는 사회연대와 공동체,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국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다"며 "2021년에도 공동체 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선도적 도시재생을 추진해 '사회연대가 살아있는 사람중심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의회 백덕 홍보팀장, '홍보의 기술' 출간

다양한 자치단체 홍보 방법 담아



전주시 공무원이 자치단체 홍보 기법을 폭넓게 다룬 책을 출간해 화제다.

전주시의회 백덕 홍보팀장(59)은 자신의 홍보 경험을 토대로 자치단체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163쪽 분량의 <홍보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부제로 '시장군수 영웅 만들기'를 붙였다.

이 책에는 자치단체마다 홍보 트렌드로 떠오른 SNS 활용하기에서부터 유튜브 활용하기, 보도자료 작성하기, 홍보대사 활용과 자치단체 간의 품앗이 홍보 등 모두 5개 분야의 홍보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저자는 15년여의 신문기자를 거쳐 홍보 전담 공무원 등 총 30여년간 홍보 분야에서 뛰었던 경험들을 살려 SNS와 유튜브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과 기법을 사로잡는 보도자료 작성법 등 실전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책을 구성했다.

특히 책은 스페셜코너에 '시장군수의 소통하기' 페이지를 따로

두어 시장 군수가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할 것인지 그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홍보가 곧 시장군수의 연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전국 자치단체의 SNS와 유튜브 홍보 실태를 파악, 한 눈에 홍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제시한 뒤 자치단체 간의 품앗이 홍보로 홍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주장했다.

백 팀장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현장에서 뛰는 홍보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이 책이 시장 군수님들의 홍보 의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자전거도로 21.2km 개설·정비

전주시, 43억3300만원 투입해 기린대로·백제대로 등 11개 노선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개선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43억3,300만원을 투입해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11개 노선, 21.2km 구간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사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인 기린대로와 백제대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호남제일문에서 가련광장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시는 올해 잔여 구간인 가련광장부터 금암광장까지 5.6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잇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경기장네거리에서 백제교, 꽃밭정네거리에서 이르러 백제대로 11km 구간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팔과정로와 유연로, 서신로 등 2.57km 구간의 노후화된 자전거도로를 쾌적하게 정비하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해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의 차도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 단차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자동차와 자전거 이용자 간 사고



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과의 상충 구간에 암색으로 색상을 달리해 포장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금암광장부터 호사광 요양병원까지 팔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는 삼천교부터 세내교까지 약 0.9km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분리해 하천 둔치 내 보행자와 자전거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롯데백화점 인근 전주천에 위치한 자전거 진출입로도 신규 개설해 이용편의를 높일기로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안내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용,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적용되는 변경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 월수입액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족인 경우 195만516원 이하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쉽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쉽표, 프로젝트'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심리상담도 강화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과 활동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쉽표, 프로젝트'의 제12·13기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돕기 위해 최종학력 졸업·종퇴 후 2년이 경과해야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개인심층상담 횟수는 당초 3회에서 4회까지 가능토록 확대했고, 고위험군의 경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가적인 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심리검사와 해석 및 심층상담, 그룹별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취업준비와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힐링캠프와 사후 심리검사, 청년쉽표 에세이를 통해 심리상담 전후 심리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재도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재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재경일자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참여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TNWL09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뒤 다음 달 17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년쉽표, 프로젝트"는 구직도전과 실패, 열악한 노동으로 인한 소진과 탈진, 상처·우울증, 자존감 상실 등의 악순환에서 청년을 탈피시키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